

지역 소식통

‘고창방문의 해’ 기념  
음성 관람료 1년간 무료

고창군이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1년간 고창음성을 무료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고창군민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입장하며, 유료입장객에 대하여 관람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 유입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고창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고창음성 관람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상인과 청소년은 전액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어린이는 고창군 음성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23년에 한해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3월부터는 고창음성 내 동문(등양루) 개장으로 자연마당과 연계한 관람객 동선을 확대하고, 고창군의 역사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환경을 개선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토지분할 절차  
통합위임장으로 간소화

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토지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 입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창구(민원실 7번 창구)에서 처음 한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천만관광객 유치 목표'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문화관광지원 연계 '고창다운 관광컨텐츠'로 관광객 유인

고창군이 세계유산 5관왕에 빛나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특색있는 콘텐츠를 발판 삼아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담다'를 주제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선포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민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여행업계 관계자, 군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5개나 품고있는 고창군 관광 홍보영상과 1월 및 추진방향 발표, 심덕섭 고창군수의 방문의 해 선포 이후 군민대표 5인의 결의문 낭독, 성공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또 지역 대표축제들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고창 여행주간 운영 등 '고창형 투어'가 선보인다.

이달

특히 최근 수화여행 추세가 테마형 수화여행(주제와 목표를 정한 뒤 가야 할 장소를 선택)으로 바뀌면서 고창군의 대표적 체험학습 장소를 사정에 교육청과 유관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머무는 관광으로 변화.아간 콘텐츠 확충 등

지역에 오래 머물며 소비하는 관광으로의 변화도 모색한다. 방문객 호응이 컸던 고창농악 아간 상설공연의 무대가 고창 곳곳으로 확대된다. 또 구시포 해수욕장 아간 버스킹, 운곡습지 반딧불 체험, 전통시장 야시장 고인돌 미디어아트 등이 운영된다.

특히 10월에는 50주년을 맞는 고창모양상제에 최첨단 CT를 접목해 화려한 빛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새로운 시작 · 희망의 정읍'

이학수 시장, 시무식서 신년 화두로... 올 한해 시정 방향 제시

정읍시가 2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열고 합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시무식에 앞서 이학수 시장과 간부 공무원은 흥취담을 참배했다. 시무식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시장의 신년사 발표와 직원 희망메시지 릴레이 영상 상영,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이끈 시정 방향을 되돌아보고, 새해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신년 화두로 올 한해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로 '민생경제 회복으로 풍요로운 정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정읍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공 배달업 구축과 지역 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생명의 첨단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산지 자원 특화사업을 추진



정읍시가 2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열고 합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이끈 시정 방향을 되돌아보고, 새해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신년 화두로 올 한해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고액기부자 탄생

이정권씨 최고 한도 500만원 기부... 2016년부터 근농인재육성재단에도 매년 장학금 기탁

부안군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1호 고액기부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1호 고액기부자는 부안 상서면 출신 이정권씨로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던 기업인 D&H글로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찾아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정권씨는 평소에도 부안군정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16년부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군은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한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이정권씨는 평소에도 부안군정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16년부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모금된 기부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예치하고 안정적인 기금 조성 기반 마련 후 지역의 핵심사업 등과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발전을 위한 기부자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의회 2023년 계묘년 시무식 개최... 힘찬 출발 다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일 2023년 부안군의회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계묘년(癸卯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의장의 신년사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로부터 새해 인사말을 통하여 계묘년 제9대 부안군의회 성공을 다짐하였다.

이후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과 권익현 군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서립공원 호국영령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사다난 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지속적인 코로나 19와 짙은 폭락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며 올 한 해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힘찬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초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며 군민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권익을 지키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군"

2023년 새해다짐 시무식... 새로운 한 해 새출발 다짐

고창군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전직원이 함께하는 새해다짐 시무식을 열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해 시무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역대 최대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지역의 목표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3 새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의 접목 도시, 고창인구 5만 시수, 폭넓은 복지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자랑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고창군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전직원이 함께하는 새해다짐 시무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역대 최대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지역의 목표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